

국제 방송 · 음향 · 조명기기 전시회

장상원 CBS 기술연구소 차장

KOBA의 최신 음향 장비와 전시장 Review

SAMA SOUND



무선 시스템의 명가 Shure와 방송용 라우드니스 기술의 선구자 TC Electronic의 한국 공식 수입원인 삼아프로사운드(이하 '삼아')는 이번 KOBA 2015에서도 다양한 방송용 전문 음향 장비들을 국내 시장에 소개하였다. 지난 KOBA 2002 전시회로부터 참가한 삼아는 KOBA 전시회와 함께 성장한 대표적인 방송 음향 전문 기업으로, 해외 유수의 음향 브랜드들을 국내 시장에 소개하면서



쌓인 노하우와 고객들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국내 방송 음향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번 KOBA 전시회 1층 A홀 음향관에 부스를 차린 삼아는 Shure의 플래그십 무선 시스템인 Axient Wireless Management Network 제품을 전시하여 현존하는 가장 최첨단의 RF Coordination 기능을 선보였다. Axient 무선 시스템의 대표적인 기능으로는 외부로부터의 무선 주파수 간섭을 자동으로 회피하는 기능은 물론 Wireless Workbench 소프트웨어를 통한 RF 모니터링 및 제어기능이 있으며, 방송현장에서 최대한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최신의 무선 송신기 배터리 제어 기능까지 포함하여 방송현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무선 시스템 기술의 미래를 방문객들에

게 체험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이밖에도 삼아가 무선시스템 외에도 강점을 보이는 분야인 TC Electronic의 방송 음량 제어용 라우드니스 미터와 프로세서 장비들도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였다. 라우드니스의 태동기부터 기술과 관련 제품 개

발을 주도해왔을 뿐만 아니라 ITU, EBU, Cenelec 등의 협회와 브라질, 중국, 일본의 자체 라우드니스 규정을 만드는데 참여할 정도로 관련 기술에 정통한 TC Electronic의 공식 수입원인 삼아는 현재 6가지의 라우드니스 미터와 6가지의 프로세서 등 다양한 라우드니스 관련 제품을 사용자가 예산과 용도에 맞추어 선택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삼아프로사운드의 방송기술영업 담당자인 정호중 부장은 “세계적인 전문 방송음향 브랜드들과의 끊임없는 기술 교류와 서비스 개선을 통해 국내 방송현장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선진 기술들을 소개하여 방송 음향 발전에 기여하는 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세계적인 악기음향전문기업 야마하뮤직코리아는 KOBA 2015에 참가해 라이브 공연 무대나 기업 이벤트 현장 등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 가능한 디지털 오디오 믹서 ‘TF(Touch and Flow) 시리즈’를 선보였다.



이번 행사에서 선보인 야마하 ‘TF 시리즈’는 터치 패널 사용에 최적화된 ‘터치 플로우 오퍼레이션(Touch Flow Operation)’ 인터페이스를 통해 사용자들에게 빠르고 효율적인 작업환경을 제공하며, 야마하가 자랑하는

‘D-PRE’ 마이크 프리앰프와 8개의 강력한 프로세서가 탑재되어 풍부하고 자연스러운 사운드 메이킹이 가능하다.

또한 터치 패널 옆에 위치한 ‘터치 앤 턴(Touch and turn) 노브’와 컴프레서와 이퀄라이저 화면으로의 빠른 접근을 제공하는 ‘1-knob COMP(원 노브 컴프레서)’, ‘1-knob EQ(원 노브 이퀄라이저)’를 통해 보다 세밀한 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짧은 시간 내에 최소한의 노력으로 뛰어난 사운드를 얻을 수 있다. 야마하 ‘TF 시리즈’는 오디오 믹스의 설정을 저장하는 200개의 ‘씬 메모리(Scene Memory)’와 각 채널의 HA Gain, 이퀄라이저, 컴프레서는 물론 채널의 이름과 색상 같은 세세한 부분도 미리 설정이 가능한 ‘퀵프로 프리셋(QuickPro Presets)’을 통해 사용자의 기본 세팅 소요 시간을 줄여준다.

또한 USB 저장 장치를 통한 2트랙 레코딩에서부터 DAW(Digital Audio Workstation)와 연계한 멀티 트랙 레코딩까지 라이브 레코딩에 대해서도 충실한 솔루션을 제공하며, ‘TF 시리즈’와 완벽하게 연동되는 전용 애플리케이션인 ‘TF Stage Mix’와 ‘Monitor Mix’, ‘TF Editor’를 갖췄다.

야마하뮤직코리아 야마다 토시카즈 대표는 “이번에 선보이는 ‘TF 시리즈’는 필수적인 기능만을 집약적으로 구현함으로써 가격 대비 성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린 제품”이라며, “앞으로도 야마하는 프로오디오 시장 점유율 글로벌 1위라는 위상에 걸맞게 50년 이상의 음향기기 제조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 사용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최고의 제품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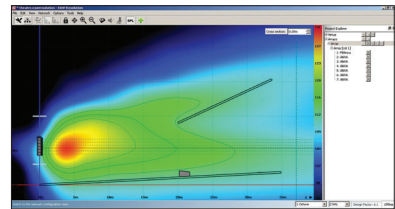
다산에스알은 KOBAS 2015에 참가해 EAW의 Aptive 시스템인 Anya와 Otto를 선보였다. EAW의 Aptive 시스템은 소프트웨어를 통해 지향각과 커버리지를 정밀하게 조정하는 차세대 음향시스템으로 라인 어레이 스피커 Anya와 서브우퍼 Otto로 구성된다. Anya는 지금까지 라인 어레이(Line Array) 스피커라면 당연히 갖게 됐던 J커브가 필요 없는 신개념의 어레이 스피커로 원하는 커버리지(Coverage)를 만들기 위해 스피커의 각도를 물리적으로 조정해야했던 전형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일자 형태로 Anya를 리강한 후 Resolution 2 소프트웨어를 통해 정밀하게 컨트롤해서 수직 커버리지 180°까지 구현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는 기존 라인 어레이 방식보다 설치 시간과 인력을 크게 절감할 뿐 아니라 공연 중에도 커버리지 영역이나 기타 변수에 따른 조정을 실시간으로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또한 2층 발코니 구조의 경우 발코니 부분을 피해 정밀한 커버리지를 구현하는 등 공연장의 구조에 대응하는 세밀한 조정이 가능하다.



중앙의 Anya 스피커와 좌측의 Otto 서브우퍼

Anya는 HF(High Frequency) 1" 14개, MF(Mid Frequency) 5" 6개, LF(Low Frequency) 15"인치 2개 등 총 22개의 트랜스듀서(Transducer)

로 구성되어 있고 이를 각각 구동하는 총 1만 4백 와트 출력의 앰프 및 교체 가능한 파워와 22채널의 디지털 신호 프로세싱 유닛이 탑재되어 있다.



Anya의 정밀한 커버리지

각각 두개의 이더넷 커넥터와 USB 커넥터는 DSP 컨트롤을 위한 다중 전화 경로를 제공하고 Dante를 기반으로 하는 신호 패스(Signal Path)의 디지털 네트워크로 초당 1Gbps의 데이터를 전송한다. 선명한 음향의 전달 영역을 늘리기 위해 Off-Center Aperture를 사용한 2개의 15" LF 콘 트랜스듀서는 LF 영역에서 효과적으로 수평 패턴 컨트롤(Pattern Control)을 확장시켜준다.

듀얼 18" 서브우퍼 Otto는 이번 전시를 통해 국내 첫 선을 보이는 세계 최초의 Aptive 서브우퍼로 22Hz에서 160Hz의 주파수 영역을 제공한다. 하나의 서브우퍼로도 사용자 요구에 맞춰 옴니(Omni), 카디오이드(Cardiod) 또는 하이퍼 카디오이드(Hypercardioid) 등 다양한 저주파수 커버리지 구현이 가능하다. 최대 3D 커버리지 범위를 제공하기 위해 우퍼들을 같은 방향으로 구성하거나 각각의 방향을 전환할 수 있다. Anya와 동일하게 사용자가 정의하는 커버리지와 퍼포먼스의 모든 파라미터(Parameter)는 Resolution 2를 통해 컨트롤할 수 있다.



Avid가 완전히 새로운 Pro Tools | S6 콘트롤 서페이스로 이번 KOBA에 교육중심의 전시장을 꾸며 관람객을 맞이했다. 혁신적인 최신 모듈형 디자인에 업계 선두의 ICON 및 System 5 제품군의 장점을 적용한 S6은 탁월한 인체공학적 구조와 지능적인 스튜디오 콘트롤러로 오늘날 사운드 엔지니어에게 필요한 직관적이고 몰입도가 뛰어난 경험을 제공한다. S6은 복잡한 프로덕션 환경에서 유명 오디오 전문가들이 믿고 사용하는 입증된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신속한 프로젝트 완성과 최고의 사운드 믹스 제작에 필요한 기능을 제공한다.

S6는 현재 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고객의 비즈니스와 함께 성장하도록 고안되었다. 업계 최초의 모듈형 디자인을 활용하면 현재 워크플로우에 맞는 모듈로 서페이스를 사용자화하여 비용 효율을 극대화하고 비즈니스 성장에 따라 서페이스를 수평 및 수직으로 확장할 수 있다. 필요한 옵션으로 사전 구성된 S6 M10 또는 S6 M40 서페이스를 선택하거나 S6 M40에 다양한 채널 콘트롤을 조합하여 서페이스 사용자화 수준을 더욱 높일 수 있다.

S6는 고속 EUCON 이더넷 연결을 지원하므로 서페이스가 Pro Tools 및 기타 EUCON 기반 DAW와 직접 통신할 수 있으며 밀접하게 통합된 경험을 제공한다. 다른 설비의 시스템을 비롯해 네트워크 상의 모든 오디오 워크스테이션 및 미디어 어플리케이션을 최대 8대까지 동시에 제어하며 놀라운 응답성을 제공하며, 완벽한 네트워크 통신을 제공하므로 자유자재로 서페이스를 구성, 확장 및 재구성할 수 있다.



Avid S6

interM



인터엠의 2015 KOBAS 컨셉은 네트워크 방식의 분산형 시스템을 통하여 PA/SR 구분이 없는 통합 솔루션을 제시하였다.

기존 6000 시스템의 매트릭스 장비(ECS-6216)와 광 전송장비인 FTA/FRA-108S를 연결한 근거리 전송 방식, 또는 Dante 네트워크 장비인 DASR-288을 이용한 전송 방식 등이 이용되었으며, 원거리 전송에는 Ethernet으로 오디오 및 점점 전송이 가능한 AOE-212N으로 WAN/LAN 망을 통한 분산형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었다. Ethernet으로 Full HD 영상 전송을 지원하는 VHD-300이나 RF Modulator인 HEM-6500 등을 이용한 A/V 전송 솔루션 또한 인터엠의 분산형 시스템 구축에 사용되었다.

이번 KOBAS 2015에서는 과거의 INS 전송 제품들에 더하여, 어떤 장소에 서든 간편한 적용이 가능한 새로운 네트워크 장비들을 선보였다. 앰프 내부에 DSP와 DANTE 모듈을 내장한 D-3000 파워앰프, 그리고 Network Stream이 가능한 PMU-N 믹싱 앰프는 더욱 효과적인 분산형 시스템 구축을 가능케 할 것이다. 또한 AOE-212N, DAC-288 간의 연결로만 구성되었던 기존의 INS 방식에 변화를 주어, 보다 경제적으로 분산형 시스템 구축이 가능한 저가형 장비를 새롭게 출시하였다.



PMU-N 믹싱 앰프

PA/SR 구분이 없는 통합 솔루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견고한 기술력과 신뢰성이 필요하다. 고효율, 고성능, 경량의 Class-D 앰프 기술과 4Ω/8Ω/High-Z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의 개발, 그리고 출력의 다양화 및 고품질 트랜스버전을 추가한 CI 스피커의 라인업 확장을 통해 인터엠은 국내 음향 시장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다.

TechData®



이번 KOBAS에서 테크데이타는 SoundCraft의 신제품 Vi 7000을 선보였다. Vi 7000은 Vi 3000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96kHz 샘플레이트를 지원하고 입출력 수가 늘어난 콘솔이다. Vi 3000과는 달리 로컬랙을 사용하는 콘

솔로써, 컨트롤 서페이스의 심플한 디자인을 유지하면서 128입력을 동시 믹스 가능하며, 32 모노/스테레오 출력을 가지고 있다. 이 외에도 렉시콘 기반의 내장 이펙트 엔진, BSS DPR901ii 멀티밴드 컴프레서, 모든 출력단에 BSS 그래픽 EQ 등을 탑재하였다.

Ui16은 스테이지 박스 형태의 디지털 믹싱 시스템에 Wi-Fi를 탑재하여 원격지에서 웹 브라우저로 제어하는 시스템이다. 웹 브라우저와 Wi-Fi가 가능한 기기, 즉 스마트폰, 태블릿 PC, 랩탑 등에서 Ui16을 조작할 수 있다. iOS, 안드로이드, 윈도우, Mac OS, Linux 등 모든 플랫폼에서 접속 가능하며 최대 10개의 장비까지 동시에 접속할 수 있다. Signal Processing에 있어서는 dBx AF52, DigiTech Amp Modeling을 비롯한 dBx, Lexicon, DigiTech 기반의 프로세서를 내장하고 있으며 4밴드 파라메트릭 EQ, 하이패스 필터, 컴프레서, 디에서, 노이즈 게이트 등 필요한 대다수의 기능이 탑재되어 있다.